

#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아람\*

<sup>1</sup>충남대학교 수의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Pe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athy Ability

A-Ram Han<sup>1\*</sup>

<sup>1</sup>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의 정도가 성별, 학년별, 사육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애완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 검사와 공감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3에 의해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t-검증, 변량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공감능력 정도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애완동물 소유의 즐거움이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성별, 사육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은 성별, 사육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pe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athy ability, and analysed the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pets and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athy depending on gender, school year and rearing period. To carry out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giving a test on the attitudes toward pets and a test in empathy ability to 2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ho had a pet rearing experience in the past. With regard to the data collecte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carried out using SPSS win2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acts were revealed. First, the attitudes and the degree of empathy ability for pets showed relevance. Second, affection for pets, interaction, and the joy of having pe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empathy ability.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pets depending on gender and rearing period.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y ability depending on the gender and rearing perio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school year.

**Key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Empathy ability, Pet, Pet attitud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는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 시기에서의 경험들은

성장한 이후의 모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1]. [2]에 따르면, 아동기는 인지적 기능과 운동, 놀이기능을 나타내기 시

\*Corresponding Author : Han A Ram(Chungnam Univ.)

Tel: +82-10-2024-0391 email: hanarram@naver.com

Received January 5, 2016

Revised (1st January 26, 2016, 2nd February 3, 2016)

Accepted February 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작하며, 신체의 균형적 발달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경쟁심이나 협동심과 함께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알게 되며 그들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긍정적 자아관이나 부정적 열등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출산을 감소로 인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과잉보호가 아동들을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등의 대중 매체와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으로 정서교류의 경험과 기회가 적어지면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일탈행동, 만성무력감,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3-4].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공통점은 아동들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타행동, 친사회성 등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5].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한 자녀 가정의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아동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짐에 따라 이러한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애완동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5년도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1.8%로, 5가구 당 1가구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 중, 개만 사육하는 가구는 16.6%, 고양이만 사육하는 가구는 2.7%, 개와 고양이 및 타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구는 2.5%이다[6].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로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64.9%를 차지하며, 이외로 하나의 친구/가족을 갖고 싶어서, 가족이 원해서,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외로움을 달래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완동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친구/가족이 생긴 점과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7]. 이렇듯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 애완동물을 통해서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애완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왜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어떤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8].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어린 시절 동안 애완동물을 기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동물과 타인에게 더욱 인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9-10]. 또한, 동물이 사람의 공감 발달과 인도적인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어린 시절 동안의 애완동물과의 관계가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람과의 공감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9]. 즉, 애완동물과의 공감은 사람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 공감[11-20], 공감능력[21-23], 공감특성[24-26], 애완동물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27-32], 애완동물과의 활동[29, 33-35]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둘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성별, 학년, 사육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은 성별, 학년별, 사육기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을 같은 의미로 보았다.

## 2.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공감능력과의 관계

공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37].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해내는 능력과 상대의 역할을 취하여보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해 보는 것으로,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이에 해당된다[22]. 또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이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22]. 즉, 공감능력이 높은 아동이 타인을 배려하거나 상처 입은 친구를 돕는 것과 같은 행동을 자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때리는 행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동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고 밝혀졌다[22].

애완동물에 대한 아동의 태도 연구를 보면, 8-14살의 아동 중에서,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이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동보다 공감능력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14].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성인이 된 이후의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11, 15, 19-20],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타인에 대한 존중감, 및 사회적 신뢰가 높았다[12, 16]. 또한, 어린 시절 애완동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33], 아동기 동안 애완동물과의 활동은 공감수준, 친사회적 행동과도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34].

[11]의 초등학생의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 연구에 따르면,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점수는 모두 이론적 평균보다 높았으나, 성별, 학년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의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소유하지 학생보다 높다고 밝혔다. 즉, 애완동물을 소유한 학생이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를 통해 애완동물과의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한 아동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 감정이입능력, 인지발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16]의 연구에서도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아동의 공감능력, 자존감, 자기통제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애완동물의 소유와 아동의 사회적 민감도와 대인 신뢰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아동의 경우, 타인을 보다 더 잘 보살피고, 조력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27].

[17]의 연구에서는 동물에 대한 친밀감이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역시, [27]의 연구에서도 애완동물을 기르는 아동이 기르지 않는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써,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의 연구에서는 애완동물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아동의 애완동물 소유여부보다는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29]의 연구에서도 역시 애완동물과의 직접적인 활동이 관계유지에 필요한 공감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32]의 연구에서는 동물에 대한 태도, 애완동물의 사육, 공감 능력과 성별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사람사이의 공감 능력과 동물에 대한 태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동물의 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과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반사회적인 행동과 공감 능력의 결핍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잠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물에 대한 공감과 태도사이에서 특정한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하였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과거에 애완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20명(남 99명, 여 121명)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Characteristics	Grade			Total	
	4	5	6		
Gender	M	11	40	48	99
	F	13	50	58	121
Total	24	90	106	220	

#### 3.2 검사도구

##### 3.2.1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35]의 연구에서 개발한 애완동물태도(Pet Attitude Scale) 측정도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3개 영역(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가정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애완동물 소유에 대한 즐거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

지 않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 Likert 척도이다.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검사의 하위 영역별 구성내용 및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758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하위 영역에서 애완동물의 애정과 상호작용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746, 애완동물 소유의 즐거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662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가정에서의 사육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561로 약간 낮은 편이다.

Table 2. The reliability of Pet Attitude (n=220)

Test	Content	Item	Item number	Cronbach $\alpha$
Pet Attitude	love and interaction	3	1,2,3	.746
	pets in the home	3	4,5,7	.561
	joy of pet ownership	3	6,8,9	.622
Total		9		.758

### 3.2.2 아동용 공감능력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36]의 연구에서 개발한 어린이용 공감지수(Children' Empathizing Quotient: EQ-C)를 국내용으로 타당화한 '한국어판 자기 보고형 아동용 검사지(EQ-C)[37]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8문항, 9문항,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그저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 Likert 척도이다. 아동용 공감능력 도구의 하위 영역별 구성내용 및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816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하위 영역에서 정서적 공감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721, 인지적 공감능력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603으로 양호한 편이나, 사회적 공감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562로 약간 낮은 편이다.

Table 3. The reliability of Empathy Test(n=220)

Test	Content	Item	Item number	Cronbach $\alpha$
Empathy	Emotional empathy	8	1,3*,14,15,18,22,23,24	.721
	Cognitive empathy	9	2*,4,7*,8,12,13,16*,20,21	.603
	Social empathy	9	5*,6*,9*,11*,17*,19*,25*,26*	.562
Total		26		.816

\* : negative item

### 3.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12월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조사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고, 상관분석, t-검증, 중다 회귀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해석

### 4.1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

Table 4는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4에 의하면,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 및 상호작용과 정서적 공감과의 관계는  $r=.295$ ,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과 정서적 공감과의 관계는  $r=.269$ 로,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 및 상호작용과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은 정서적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 및 상호작용과 인지적 공감과의 관계는  $r=.225$ ,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과 인지적 공감과의 관계는  $r=.245$ 로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 및 상호작용과 애완동물 소유에 대한 즐거움은 인지적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애완동물 사육과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은 사회적 공감과의 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과의 관련성은 있으나, 사회적 공감과는 관련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correlation analysis pet attitude and empathy ability (n=220)

Variables	love and interaction	pets in the home	joy of pet ownership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social empathy
love and interaction	1					
pets in the home	.316***	1				
joy of pet ownership	.505***	.404***	1			
emotional empathy	.295***	.110	.269***	1		
cognitive empathy	.225***	.122	.245***	.271***	1	
social empathy	.179***	.038	.087	.113	.438***	1

\*\*\*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et attitude and empathy ability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Multicollinearity	
	B	S.E			Tolerance	VIF
Constant	68.950	5.334		12.927***		
Love and Interaction	.947	.297	.238	3.188**	.604	1.353
Pets in the home	-.417	.429	-.072	-.973	.808	1.334
Joy of pet ownership	.429	.436	.165	2.023*	.621	1.612
F	R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8.580***	.326		.106		.094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5는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4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5에 의하면,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인들과 공감능력 총점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0.6%로 나타났다. 즉,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공감능력의 전체 변량 중 10.6%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4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들 중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beta = .238$ )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으며, 그 다음 애완동물 소유의 즐거움( $\beta = .165$ )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애완동물 사육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애완동물 소유의 즐거움의 요인들이 공감능력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아동의 성별, 학년별 및 사육기간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

### 4.2.1 성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

Table 6은 성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남자 아동의 평균은 36.20이고, 여자 아동은 이보다 훨씬 높은 37.83이었고, t값은 -2.19로서  $p < .05$ 에서 성별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애완동물 소유에 대

한 즐거움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보다 애완동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소유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Gender differences in pet attitude

Variables	Male(n=99)		Female(n=121)		t	p
	M	SD	M	SD		
Love and interaction	11.34	2.93	11.90	2.81	-1.43	0.15
Pets in the home	12.11	2.81	12.71	1.84	-2.27	0.02
Joy of pet ownership	12.75	2.19	13.22	2.06	-1.63	0.11
Total	36.20	5.52	37.83	5.40	-2.19	0.03

### 4.2.2 학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

Table 7은 학년에 따른 애완동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7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학년에 관계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Grade differences in pet attitude

Variables	Grade 4 (n=24)		Grade 5 (n=90)		Grade 6 (n=106)		F	p
	M	SD	M	SD	M	SD		
Love and interaction	12.00	2.49	11.74	3.10	11.46	2.75	.45	0.64
Pets in the home	12.83	2.46	12.51	1.97	12.25	1.86	1.04	0.36
Joy of pet ownership	13.33	2.10	13.00	2.23	13.91	2.07	.88	0.68
Total	37.17	5.79	37.26	5.712	36.61	5.53	.88	0.42

### 4.2.3 사육기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

Table 8은 사육기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2년 미만 사육한 학생의 평균은 35.70이고, 2년 이상 사육한 학생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39.11이었고, t값은 -4.70으로서  $p < .001$ 수준에서 사육기간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모든 하위요인에 있

어서도 전체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애완동물을 2년 이상 사육한 학생들이 2년 미만 사육한 학생들에 비해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Rearing period differences in pet attitude

Variables	less than 2years (n=133)		more than 2years (n=67)		t	p
	M	SD	M	SD		
Love and interaction	10.99	2.95	12.62	2.44	-4.28	0.00
Pets in the home	12.11	2.09	12.90	1.69	-2.96	0.00
Joy of pet ownership	12.59	2.29	13.60	1.70	-3.50	0.00
Total	35.70	5.76	39.11	4.44	-4.70	0.00

### 4.3 아동의 성별, 학년별, 사육기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 4.3.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Table 9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남자 초등학생의 평균은 83.22이고, 여자 초등학생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8.85이었다. t값은 -3.74로서  $p < .001$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감능력에 대한 모든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그리고 사회적 공감이 있어서도 전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보다 공감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ability

Variables	Male(n=99)		Female(n=121)		t	p
	M	SD	M	SD		
emotional empathy	28.49	4.63	30.56	4.57	-3.30	0.00
cognitive empathy	30.03	4.83	31.35	5.02	-1.97	0.05
social empathy	24.70	4.07	26.94	4.03	-4.08	0.00
Total	83.22	10.46	88.85	11.55	-3.74	0.00

#### 4.3.2 아동의 학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Table 10은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10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학년에 관계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Grade differences in empathy ability

Variables	Grade 4 (n=24)		Grade 5 (n=90)		Grade 6 (n=106)		t	p
	M	SD	M	SD	M	SD		
emotional empathy	30.71	3.72	29.48	5.05	29.47	4.60	.74	0.48
cognitive empathy	31.50	5.79	30.86	4.85	30.44	4.90	.49	0.61
social empathy	26.54	4.12	25.54	4.17	26.10	4.22	.73	0.48
Total	99.75	10.60	85.88	11.90	86.02	11.16	.65	0.53

### 4.3.3 사육기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Table 11은 애완동물 사육기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2년 미만 사육한 학생의 평균은 85.03이고, 2년 이상 사육한 학생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8.14이었고, t값은 -1.99로서  $p < .05$ 수준에서 애완동물 사육기간에 따른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위요인별로는 애완동물 사육기간에 따라 정서적 공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애완동물을 2년 이상 사육한 아동들이 2년 미만 사육한 아동들에 비해 전체적인 공감능력이 높았고, 특히 정서적 공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11.** Rearing period differences in empathy

Variables	less than 2years(n=133)		more than 2years(n=67)		t	p
	M	SD	M	SD		
emotional empathy	28.83	4.55	30.80	4.70	-3.11	0.00
cognitive empathy	30.26	4.87	31.44	5.05	-1.72	0.08
social empathy	25.94	4.14	25.90	4.27	.01	0.94
Total	85.03	10.87	88.14	11.96	-1.99	0.05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관계를 규명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태

도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의 정도가 성별, 학년별, 사육 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초등학생의 공감능력은 관련성이 있었으며,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 및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은 정서적 공감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가정에서의 사육과 애완동물 소유에 대한 즐거움은 사회적 공감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없었다. 즉,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과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공감과의 관계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가 공감능력의 전체 변량 중 10.6%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애완동물 소유의 즐거움 요인들이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가정에서 사육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의 연구[11], Taylor와 Signal(2005)의 연구[32], Levinson(1978)의 연구[17]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Shin의 연구[29]에서 애완동물과의 활동은 관계유지에 필수적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부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성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남자 초등학생에 비해, 여자 초등학생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애완동물에 태도에 관한 모든 하위요인들도 전체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야 한다는 요인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보다 애완동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소유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에서는 학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 5, 6학년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는 학년에 관계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육기간에 따른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2년 미만 사육한 학생에 비해 2년 이상 사육한 학생의 평균이 유의

한 수준에서 높았다. 즉, 애완동물을 2년 이상 사육한 학생들이 2년 미만 사육한 학생들에 비해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상호작용,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애완동물의 소유에 대한 즐거움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세 번째,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는 공감능력에 대한 모든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그리고 사회적 공감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공감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의 연구[21]의 연구에서 남자 초등학생보다 여자 초등학생이 공감능력 점수가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Yu의 연구[23]에서도 역시 5-6학년 여자 초등학생이 같은 학년 남자 학생보다 높은 공감능력을 보여준 결과와 일치한다. 이외 다른 그러나 학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공감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은 학년에 관계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2년 미만 사육한 학생이 2년 이상 사육한 학생에 비해 훨씬 높은 결과를 보이고, 사육기간에 따라 공감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공감에서만 사육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완동물을 2년 이상 사육한 학생들이 전체적인 공감능력이 높고, 특히 정서적 공감이 높음을 밝혀주고 있다. 위의 결과는 [11-17, 19-24, 26-27, 29-30, 32, 33-34]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애완동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정서적, 인지적 공감능력이 발달됨을 시사한다. 특히, 점점 핵가족화, 자동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육으로 인한 긍정적인 태도 및 영향은 정서적 안정감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4,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애완동물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후속 연

구에서는 이 두 가지 척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Y. Choi,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aladjustment Among Children Aged Between Ten and Twelve",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 Y. R. Oho, "Experiential Study of Adolescents with ADHD", *Seoul Women's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0.
- [3] D. H.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Peer Relationship", *S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4] C. H.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tudent's Empathic Abilities, School Adjustment and Stress", *Chungbu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5] H. G. Chon, "Relationships among Empathic Ability, Self-Regulation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Upp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orted News, 12.17, 2015.
- [7] Corporation Macromill Embrain, "2015 Pet-related Perceptions", *Research report*(3), 300-340, 2015.
- [8] Serpell, J. A., "Evidence for an association between pet behavior and owner attachment levels",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47, 49-60, 1996.  
DOI: [http://dx.doi.org/10.1016/0168-1591\(95\)01010-6](http://dx.doi.org/10.1016/0168-1591(95)01010-6)
- [9] Paul, E. S. & Serpell J. A., "Companion animals and us: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pet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8-186, 2000.
- [10] Serpell, Robert, "The significance of schooling: Life-journeys in an African society", *Cambridge*, 1993.
- [11] S. J. Ma, "Pet Animal Ownership and Inter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Practical Education*, 17(2), 191-208, 2004.
- [12] J. H. Hong, J. Y. Moon, S. S. Eum, "Study on the Relation of Companion Animal Attitude, Self-esteem, Healing and Loyalty",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9(1), 49-56, 2015.
- [13] Bradley, Robert H., Bettye M. Caldwell, "174 children: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5 years", *Home environment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5-56, 1984.
- [14] Daly, Beth, L. L. Morton, "An investiga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s and empathy as related to pet preference, ownership, attachment, and attitudes in children", *Anthrozoös*, 19(2), 113-127, 2006.  
DOI: <http://dx.doi.org/10.2752/089279306785593801>
- [15] Endenburg, Nienke, "Animals as companions: demographic, motivational, and ethical aspects of companion animal ownership", *Thesis Amsterdam*, 1991.
- [16] Hyde, Karen R., Lawrence Kurdek, PAUL LARSON, "Relationships between pet ownership and self-esteem, social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trust", *Psychological Reports*, 52(1), 110, 1983.
- [17] Levinson, Boris M., "Pets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sychological Reports*, 42(3c), 1031-1038, 1978.  
DOI: <http://dx.doi.org/10.2466/pr0.1978.42.3c.1031>
- [18] Poresky, Robert H., et al, "Children's pets and adults' self-concep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2(5), 463-469, 1988.  
DOI: <http://dx.doi.org/10.1080/00223980.1988.10542951>
- [19] Poresky, Robert H., et al, "Young children's companion animal bonding and adults' pet attitudes : A retrospective study", *Psychological Reports*, 62(2), 419-425, 1988.  
DOI: <http://dx.doi.org/10.2466/pr0.1988.62.2.419>
- [20] Serpell, James A., "CHILDHOOD PETS AND THEIR INFLUENCE ON ADULTS' ATTITUDES", *Psychological Reports*, 49(2), 651-654, 1981.  
DOI: <http://dx.doi.org/10.2466/pr0.1981.49.2.651>
- [21] S.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4(5), 1996.
- [22] H. Y. Yang,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of mind i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social skill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31-47, 2008.
- [23] Y. K. Yu, "The effects of children's empathy ability on the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S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24] Barnett, William A., "Economic monetary aggregates an application of index number and aggregation theory", *Journal of econometrics*, 14(1), 11-48, 1980.  
DOI: [http://dx.doi.org/10.1016/0304-4076\(80\)90070-6](http://dx.doi.org/10.1016/0304-4076(80)90070-6)
- [25] Mehrabian, Albert, Norman Epstein,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1",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1972.  
DOI: <http://dx.doi.org/10.1111/j.1467-6494.1972.tb00078.x>
- [26] Feshbach, Norma D., Kiki Roe, "Empathy in six-and seven-year-olds", *Child development*, 133-145, 1968.  
DOI: <http://dx.doi.org/10.2307/1127365>
- [27] Y. S. Kim, "A Study of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hip of according to the pet ownership", *S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28] H. J. Kim,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families with pet-breeding experiences",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9] G. E. Shin, "Effects of Priming Pets on Needs to Belong", *Chung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0] Garrity, Thomas F., et al, "Pet ownership and attachment as supportive factors in the health of the elderly", *Anthrozoös*, 3(1), 35-44, 1989.  
DOI: <http://dx.doi.org/10.2752/089279390787057829>
- [31] Ory, Marcia G., Evelyn L. Goldberg, "Pet poss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New perspectives on our lives with companion animals/Aaron Honori Katcher, Alan M. Beck, editors*, 1983.
- [32] Taylor, Nicola, Tania D. Signal, "Empathy and attitudes



- to animals", *Anthrozoös*, 18(1), 18-27, 2005.  
DOI: <http://dx.doi.org/10.2752/089279305785594342>
- [33] Serpell, James A, "Evidence for an association between pet behavior and owner attachment levels",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47(1), 49-60, 1996.  
DOI: [http://dx.doi.org/10.1016/0168-1591\(95\)01010-6](http://dx.doi.org/10.1016/0168-1591(95)01010-6)
- [34] Sprinkle, Julie E, "Animals, Empathy, and Violence Can Animals Be Used to Convey Principles of Prosocial Behavior to Children?",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6(1), 47-58, 2008.  
DOI: <http://dx.doi.org/10.1177/1541204007305525>
- [35] Templer, Donald I., "The construction of a pet attitude scale", *The Psychological Record*, 31(3), 343-348, 1981.
- [36] Auyeung, Bonnie, et al,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11), 1509-1521, 2009.  
DOI: <http://dx.doi.org/10.1007/s10803-009-0772-x>
- [37] H. J .Cha, H. R. Ghim, S. M. Yi, J. S Eom, S. B. Lee, "A Preliminary Study for the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EQ-C Adapted 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63-81, 2010.
- [38] M. H. Yang, "The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0.

---

## 한 아 람(A-Ram Han)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학사)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수의학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반려동물, 동물매개치료, 수의내과학